

100만원 '씨앗'이 키운 나눔... 낮은 곳의 꿈 무럭무럭

졸업생 뜻 모아... 이름 숨기고...
즐거이는 기부, 사회에 희망 심어
농아인야구대회 12년째 후원

하얀 야구공이 소리 없이 하늘을 가르자 3루에 있던 타자가 흠으로 뛰어 들어섰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충북 충주시 충주 야구장과 수안보야구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농아인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청주 기드온은 대전 이글스를 상대로 20 대 1 풀드게임(5회)으로 이겼다.
동아꿈나무재단은 2007년부터 전국농아인

야구대회를 매년 1500만~2000만 원씩 후원했다. 2002년 농아교육기관인 충주성심학교가 고교 야구부를 창단해 국내 최초 전국고교 야구대회 출전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충주성심학교 농아인 야구단은 선수용 야구장비도, 유니폼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를 창단해 키워낸 조일연 대한농아인야구협회장은 "동아꿈나무재단이 야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맨땅에서 야구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고 말했다.
충주성심학교 농아인야구단 출신 선수들은 이제 사회인야구단의 주축이 됐다. 내년 10월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시 충주야구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농아인야구대회 개막식. 대한농아인야구협회 제공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농아인야구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대회 이후 세계농아인 올림픽대회에서 자동으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인정돼 농아인 야구선수들이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동아꿈나무 재단이 처음 뿌린 씨앗이 농아인 야구의 저변

을 넓히는 꽃을 피운 것이다.
동아꿈나무재단은 1971년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던 현암 오달곤(玄岩 吳達坤) 씨(1985년 작고)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2020년)이 되면 가난한 영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새 달라며 100만 원을 일민 김삼만(一民 金相萬) 동아일보 사장(1994년 작고)에게 회사하면서 시작됐다. 1975년 광고탑산사때 당시 동아일보가 국민과 애독자가 보내는 성금에 별도 출연금 3억 원을 합쳐 1985년 6월 꿈나무기금으로 설립됐다. 이후 33년간 개인의 꾸준한 기부가 동아꿈나무재단을 키워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東亞꿈나무 장학금 기금 출연 현황

2017년 10월 11일까지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오달곤	1971.3~1987.10	11	359,978,166	최상목	1992.8~2014.6	2	21,617,360	석상득	1996.11	1	4,192,411	김성열	2002.11	1	20,000,000	황의필	2002.2	1	2,006,966
오광수	1974.4~1977.12	4	177,196,062	최상철	1992.8	1	441,008	이은아	2002.12	1	1,000,000	이영민	2002.12	1	1,000,000	이영민	2009.4~2015.9	2	7,101,214
오창훈	1977.3~1984.8	7	1,800,723,406	신경무	1992.9	1	2,194,417	김보열	2003.5~2015.10	2	62,297,596	김보열	2003.5~2015.10	2	62,297,596	한유하-이은재	2009.6~2016.12	3	6,034,581
주해호	1977.9~2012.12	3	56,236,276	이명(외무부)	1992.9~12	2	3,320,638	태용철	2003.8~2004.8	2	7,612,187	박성우	2009.10	1	3,151,801				
김성돈	1972.4~1987.3	3	60,598,424	현희선	1992.10	1	22,876	최세희	2003.10	1	300,000	한국스포츠클럽	2009.12~2011.4	2	6,175,150				
김중기	1978.6~1994.1	5	159,735,142	김동수	1992.11~2006.11	5	1,776,746	조성현	1997.4	1	131,699	문종술	2010.2	1	1,031,004				
허승욱	1978.11~1985.12	2	14,689,666	이준우	1992.11	1	425,687	박형방	1997.4	1	658,493	이종남	2010.3	1	1,032,963				
이준현	1980.11	1	44,844,121	한성택	1992.12	1	210,774	김우일	1997.6~2002.9	6	21,508,336	김현	2010.4~2017.4	14	28,875,304				
박양일	1980.4~1993.2	7	107,802,152	김성정보통신	1992.12	1	816,460	김경희	1997.7	1	1,277,569	송신일	2010.11~2011.12	2	20,641,250				
이경우	1983.12~1997.12	15	67,751,029	김윤철	1990.2~2017.8	242	515,574,865	김덕만	1997.10	1	247,770	김인호	2010.12	1	1,105,874				
김경란	1984.5~1986.2	3	22,820,492	홍용희	1990.2	1	3,216,969	박노현	1997.11	1	612,509	박준구	2010.12~2012.1	4	9,194,102				
이은복	1985.4	1	52,450,438	배영호	1990.3	1	3,187,348	윤광식	1997.11	1	122,501	김명식	2011.2~2016.12	8	30,606,074				
이훈성	1985.12~1986.12	2	77,435,397	정대중	1990.4	1	3,178,886	경성고교 3-5	1998.2	1	689,486	이해량	2011.3	1	1,006,933				
기독교협의회	1985.5~1986.4	2	15,319,206	이명(정주)	1990.4~1995.6	2	4,715,247	28회 졸업생일동	1998.2	1	689,486	권희방-서경식	2011.4	1	2,011,121				
기독교협의회	1985.5~1986.4	2	15,319,206	이문세	1990.4	1	3,178,886	홍성훈	1998.2~2011.1	2	3,286,664	이명	2011.9~2013.7	2	6,296,220				
동아일보사	1985.6~1995.12	32	500,000,000	사경수	1990.4	1	153,131	노유나	1998.3	1	240,695	심영	2011.12~2017.8	4	4,072,077				
김태욱	1985.6~2014.9	32	109,109,919	김주임	1990.4	1	3,188,760	노형진	1998.3	1	240,695	심담	2011.12~2013.12	3	3,070,772				
김성식	1985.6	1	3,695,884	최재성	1990.4~1992.4	3	3,754,807	정우성	1998.5	1	118,233	김영호	2012.3	1	1,577,775				
고승철	1984.5	1	2,074,657	황민하	1990.4	1	61,252	이동민	1998.6~1999.2	2	424,164	김종식	2012.12~2013.12	2	2,023,160				
김영철	1985.2~2004.1	12	4,403,851	신형성	1990.4~2009.11	7	2,843,033	이상혁	1998.7	1	3,419,502	김성덕	2013.3	1	1,006,683				
윤영근	1985.8	1	381,689	진일장학회	1990.4~1994.4	2	534,549	충원회	1999.8~2000.8	3	32,846,950	김기근	2013.4	1	10,044,476				
홍병우	1985.10	1	711,242	호인라이온스	1990.5~2006.4	9	8,419,262	이영호	1999.8	1	2,391,461	김재택	2013.7	1	30,013,685				
키와니즈부인회	1986.1	1	347,963	이명(영동)	1990.5~1996.8	3	4,077,910	한태수	1999.9	1	9,693,889	이양배	2013.11	2	2,054,545				
강영환	1986.2	1	345,081	이중관	1990.8~1991.9	2	2,288,643	권오건	1999.4	1	95,916	김윤우식 자녀	2013.11	1	30,327,561				
김종은	1986.3	1	680,887	박동규	1990.11	1	210,346	김지욱	1999.5	1	10,065,593	CHEN HAI	2013.11	1	157,430				
김민애	1986.4	1	3,435,128	한국인선단팀	1990.12	1	2,071,528	정광영	1999.5~2002.6	38	3,850,618	김현수	2014.9	1	1,000,727				
유성욱	1986.5~1995.2	12	56,596,979	김은호	1990.12	1	1,039,902	이기수	1999.5~2015.4	50	156,217,170	오세춘	2014.10~2016.3	11	6,222,463				
이준주	1986.6	1	3,344,296	박희서	1990.12	1	4,146,297	이재사	1999.5	1	1,010,311	김우주	2014.11	1	3,842,996,450				
장경서	1986.6	1	3,286,770	김광성	1991.1~7	2	1,679,720	박종열	1999.9	1	987,734	김준배	2015.4~8	5	1,049,560				
박길용	1986.8	1	328,211	이명(개포동)	1991.1	1	413,217	최기호	1999.10~2008.4	2	2,107,064	김현철	2015.4	1	1,050,707				
최연수	1986.10	1	32,745,591	이두환	1991.1	1	2,064,991	이명	1999.10~2008.4	2	2,107,064	이원용	2015.7	1	1,048,556				
오우룡	1986.12	1	3,190,331	백인회	1991.2	1	23,783,901	대창중학교	1999.10~2008.4	2	2,107,064	김달수	2015.7	1	2,097,113				
전용찬	1986.12	1	3,190,331	이전호	1991.2	1	2,661,294	학생회	1999.12~2000.12	2	389,609	남규운	2015.8~2017.6	3	673,857				
박길순	1987.2	1	3,423,177	이보름	1991.2	1	2,661,294	김신애	1999.12	1	982,287	김종민	2015.8	1	209,537				
남제호	1987.3~1992.1	3	17,660,075	이수우	1991.2	1	271,529	김치순	2000.2	1	1,080,274	김현준	2015.8	1	209,537				
강태성	1987.4	1	15,345,537	이운영	1991.2	1	1,328,823	한태수	2000.2~2001.3	14	442,474	윤동섭	2015.8	1	209,537				
김해성	1987.4	1	3,077,388	곽인수	1991.4	1	264,386	익명	2000.3	1	1,084,947	대한용접협회	2015.12	1	1,823,487				
이준호	1987.5~2002.5	16	80,453,542	왕창희	1991.4~1994.4	3	6,722,749	양성열	2000.3	1	1,249,189,505	표연복	2016.2	1	10,474,139				
성신여대	1987.6	1	343,469	김재하	1991.4~1999.1	6	3,695,115	정현철	2000.4~2005.9	67	6,875,114	최소희	2016.7	1	733,002				
반석희	1987.9~1998.1	14	4,389,770	이용재	1991.4~2002.2	11	24,751,715	이명수	2000.4	1	54,175,920	정동하	2016.12	1	3,048,024				
(18)사범연수생	1987.11	1	401,409	생육목교회	1991.5~1994.1	7	4,888,148	김흥국	2000.5	1	1,075,939	고광호	2017.4	1	1,002,594				
김학실	1988.1	1	4,015,472	김은산	1991.6	1	2,583,955	이상철	2000.5	1	7,626,457	이영기	2017.6~7	2	200,315				
안정근	1988.3~2001.12	15	7,625,384	함봉심	1991.6~1992.6	2	29,424,142	이상철	2000.12	1	7,626,457	문순상기	2017.8	1	1,001,305				
이명(마산)	1978.3	1	4,220,513	문음희	1991.7	1	764,066	임성수	2000.12	1	75,369	이명	2017.8	1	3,003,914				
한동철	1987.3	1	327,004	백경중	1991.7	1	254,442	박기운	2000.12	1	1,071,691	합계			16,777,001,033				
이중진	1980.11	1	284,194	상명여대생	1991.6	1	2,581,337	정길자	2000.12	1	1,072,336								
문현수	1984.4	1	1,358,539	이상두	1991.9	1	250,054	도우주	2001.1	1	100,167,646								
이종일	1985.7	1	726,139	우성영	1991.9	1	732,609	조성민	2001.3~2007.7	2	4,116,289								
이명(연원인)	1985.12~2008.12	20	56,496,318	손홍명	1991.12	1	486,753	한인하	2001.4	1	10,035,904								
권희중	1986.4	1	3,000,000,000	손덕희	1991.12~1997.8	6	33,740,193	엑센츄어	2001.5	1	8,157,653								
이명(용두동)	1987.2	1	1,566,450	신수민	1991.12~2015.9	4	1,571,641	한국꽃피움협회	2001.6	1	1,044,597								
김복희	1988.3~2013.3	6	76,200,488	문정욱	1992.3	1	2,366,182	임삼택	2001.9	1	3,816,821								
김세훈	1988.6	1	3,858,483	홍정식	1992.4~1994.12	2	11,957,310	김상우	2001.10	1	1,004,398								
조기순	1988.11	1	3,675,934	오세천	1992.5	1	229,958	원용복	2001.10	1	1,506,591								
김성희	1989.4	1	3,535,700	이정태	1992.7	1	225,498	조병래	2001.10	1	1,506,591								
김경오	1989.5	1	6,945,269	이창자	1992.7~2011.12	8	25,228,541	함영훈	2001.11	1	1,004,289								
				익명(남)	1992.7	1	10,376,522	윤중용	2002.11	1	30,000,000								

2017년 10월 11일 이후 기탁자

2018년 3월 15일 현재

성명	기탁 연도	횟수	기탁금(원)
김현	2017.10	1	2,000,000
나기환	2017.10	1	100,000
관악산우회 장학회	2017.10	1	44,778,971
안덕주-김재각	2017.12	1	2,000,000
고덕환	2017.12	1	1,000,000
김윤철	2018.1~3	2	4,000,000
김대기	2018.1~3	2	2,000,000
정현철	2018.3	1	50,000
합계			55,928,971

자료: 동아꿈나무재단

파이팅 코리아 내고향 페스티벌
K-Festival 2018 4.6(금)-8(일)
서울 여의도 둔치 국회관리 축구장

봄향기 가득한 곳
K-Festival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대한민국 축제들이 한 자리에!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및 문화관광축제
- 보령머드축제
- 진주남강유등축제
- 제주유채꽃축제
- 부산불꽃축제
- 2018 BOF
- 산청한방약초축제
- 통영한산대첩축제
- 명랑대첩축제
- 대전국제외인페어
- 울산용기축제
- 비사벌문화제
- 한성백제문화제
- 홍성역사인물축제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장성황룡강노란꽃잔치
- 강진차사축제
- 정남진장흥물축제
- 곡성세계계림축제
- 담양대나무축제
- 봉화은어축제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 가성열차축제
- 태화강 정림박물관
- 금산인삼축제
- 음성뽕바축제
- 백제문화제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 울진타도축제
- 할매할매의 날
- 외 다수 축제

02 축제 이벤트 광장

신나게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